

함즐함울

하나님의 선교로 뻗어가는 가정 례 10:15 교전 9:16 행 1:8
2024년 주님의교회 표어



491
2024.10.20.

오늘의 말씀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다 시편 136편 13~14절

오늘의 주요 기사

2 추수감사절 칼럼
3-5 종교개혁지 탐방
6-8 몬탈반 의료선교

9 정신청소년포럼
9 중보기도부 수련회
10 교회사용설명서

11 십자말풀이
12 (사)섬김과 나눔
12 알립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먼 곳 코스타리카
까지 인도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가을날 고요카레에서 내 모든 삶의 시간.
특별히 지난 비전트립을 통해 보여주셨던 주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온전히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잘 지켜 주님이 나라가 확장되는데 작은 손길이
되길 희망합니다. 두분 선교사님 이느 곳에 계시든
주님이 동행하시리라 믿으며, 큰 맘 다해 기도합니다.

문은 활짝 열어드렸습니다.
제 마음은 활짝 열어드립니다. 들어오셔서,

뜻은 지게기. 하된 하순
주님 목재 살아들 모든 가정들을 채우고
주님 것으로. 오직 주님 것으로만 채우소서

특신하여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
경로 것이 겸손 즉 이의 수권화 하얀 다음.

내가 주님이 되고 주님이 내가 되어
이 세상. 영접의 세상 하나님 나라
눈부신 환광빛 다음날게 단고서 낙아올립니다.

내가 주님이 되고, 주님이 내가 되어?

주님 들어와서, 주님 다정화해서?



코스타리카 비전트립팀은 금상호 코스타리카 선교사님과 함께 가평우리마을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침묵티하우스 <고요>에서 '마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는데요~ 서로에게 쓴 편지 내용을 함즐함울을 통해 주님의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눕니다.

추수감사절 칼럼

만종으로 보는 추수감사절

빈센트 반 고흐도 반했던 그림, ‘만종’은 ‘씨뿌리는 사람’과 ‘이삭 줍는 여인들’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밀레의 대표작 중 하나이다. 밀레의 이 작품은 미국 보스턴의 작가인 토머스 골든 애플톤(Thomas Gold Appleton)의 주문에 의해 그려진 것으로 당시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을 반영하여 시대적 상황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만종’의 주제에 관한 흥미로워보이는 여러 속설이 있지만 차치하고 밀레가 회고하는 내용에 “이 그림은 밀레의 할머니가 들에서 일하시다가도 교회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일을 멈추시고 기도하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다른 그림들에 비해 신앙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한때는 이 그림을 보면서 단순히 “가난한 두 농부 부부가 추수철에 밭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구나”라고만 생각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농부 부부 후경에 넓은 밭과 수확한 것들을 모아놓은 듯한 작은 수레가 그러한 생각을 갖게 했었다. 하지만 후에 작품에 대한 설명과 배경을 알게 되었을 때 더 많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가운데 이 그림을 통해 얻게 된 감사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해보았다.

감사1 -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

먼저 만종의 주제는 감사와 기도일 수 있지만 농부 부부의 감사는 적어도 추수할 때가 되어 풍성한 수확물을 얻어 드리는 감사는 아니다. 그림의 두 부부는 얼핏 보아도 일거리를 얻어 일하는 소작농이나 일반 노동자임을 알 수 있다. 그들에게 주어진 수확물은 작은 수레에 절반쯤 담겨진 정도가 전부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수확물에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의 제목처럼 교회에서 종이 울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정도와 관계없이 발현되는 경건함이 그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다는 알 수 있다.

단순히 어떠한 절기나 때가 되어 추수한 것에 대해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소작농과 같은 고단한 노동자들의 삶일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풍요로운 경건함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음을 보게 한다.

저녁의 교회 종이 땡땡 울릴 때, 그들의 손은 쟁거나 수레에서 벗어났다. 마치 습관처럼 그들의 손은 서로를 감싸며 ‘기도 손’을 만들었다. 분명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는 손이었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진귀한 수확물을 바치는 손보다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가지런히 모은 그 손을 더 기뻐하셨을 것이 분명하다.

또한 그림에서 두 부부의 고개는 자복하는 심정으로 엎드려져 있었고 넓은 밭에 수확물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 두 눈은 자연스럽게 감겨진 것처럼 보였다.

그들의 고개는 이 세상에 실컷 휘둘리다가 자포자기하여 숙인 고개가 아니었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쫓아 살다가 특별한 날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무엇을 드릴까’를 찾아 헤매이는 눈도 아니었다. 비록 힘없이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모습은 주님께 고침을 받은 열 명의 나병환자 중 유일하게 주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했던 어느 사마리아인을 떠올리게 한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_ 눅 17:16

감사2 -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다. 우리 교회는 다른 대부분 교회와 같이 교회 약력에 맞춰 10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드린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우리가 아는대로 영국 헨리 8세로부터 시작된 종교 박해로 영국의 청교도인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 현재의 미대륙에 정착하게 된 뒤에 혹독한 겨울을 견디고 이듬 해에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으로 시작된 절기이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생각하며 추수의 때와 상관없이 한 해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한다.

너무나도 뜻깊고 의미 있는 절기인만큼 자칫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종의 두 부부가 서로 말하지 않아도 동시에 고개를 숙일 수 있었던 것은 물리적으로 교회의 종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작품 ‘만종’에서 표현된 교회의 형상은 매우 작고 희미하지만 그 교회의 종소리가 그림 밖으로 나와 우리 귓가에도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는 두 부부의 기도하는 모습 때문일 것이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교회에 나아오는 길에 나의 손에는 지금 무엇이 쥐어져 있으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왔는지 손을 뒤적여본다.

명절이 되어 고향에 내려갈 때에 부모님이 벌써부터 나와 맞이하시며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손에 들린 영광굴비와 과일바구니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굵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_ 시 69:30-31

함글함글



2024 주님의교회
종교개혁지 탐방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합니다

역사에서 종교개혁이라고 말할 때에는 보통 16세기 유럽에서 로마가톨릭교회를 상대로 일어난 저항과 개혁운동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어의 뜻 그대로 기존 로마가톨릭교회의 형태와 방식을 완전히 다시 구성하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즉 중세 로마가톨릭교회의 교리와 예전을 새로운 틀 안에서 개혁하려는 시도가 종교개혁운동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특별히 초대교회의 가르침과 전례와 제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경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표방한 근본으로 돌아가는 정신은 곧 기독교 복음의 근본인 성경과 초대교회로의 회복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중세를 거치면서 초대교회의 복음과 예식에 덕지덕지 덧붙여진 로마가톨릭교회의 잘못된 행습을 바로 잡아 본래의 순수한 모습을 회복하려는 운동입니다.

종교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중세 시대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리옹, 잉글랜드의 옥스퍼드, 체코의 프라하에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지만 중세 로마가톨릭교회의 억압과 박해로 인해 가시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그 정신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1517년 독일의 작은 도시 비텐베르크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주창하고 나서면서부터 그 목소리들이 모여 합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독일에서 루터교회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 스위스의 취리히에서는 1519년 츠빙글리가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습니다. 츠빙글리의 개혁은 스위스의 여러 도시로 확산되었고 마침내 1536년 제네바가 프로테스탄트 도시가 되었습니다. 때마침 칼뱅이라는 프랑스 출신의 개혁자가 제네바 종교개혁운동을 지도하면서 스위스 종교개혁은 독일과 다른 전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스위스에서 시작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전통을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렇게 16세기 종교개혁 운동은 크게 루터파와 개혁파로 구별되어 전개되었습니다. 특별히 스위스의 종교개혁 전통은 루터교회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칼뱅의 고국인 프랑스는 물론이고 루터의 본거지였던 독일을 포함하여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헝가리까지 퍼졌습니다.

주님의교회 종교개혁지 탐방팀은 80명의 교우들과 9월 23일부터 10박 11일 동안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를 다녀왔습니다. 뜻하지 않았던 어려움의 시간들도 있었지만, 모두가 안전하게 일정을 마치고 오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귀한 탐방 일정 중에도 진행된 조별 말씀 묵상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계속 개혁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이 표어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성경의 원칙에 비추어 그 정신과 원리와 체계를 성찰하고 끊임없이 개혁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20세기 신학자 칼 바르트가 1947년 “교회는 항상 계속되어야 합니다.(Ecclesia semper reformanda est)”라고 주장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형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성찰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개혁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한시영 목사



2024 주님의교회
종교개혁지 탐방

나의 신앙생활을 지키는 힘이 될 종교개혁지 탐방

언제나 그렇듯 여행계획을 세우는 일은 설레는 일이다. 종교개혁지를 가기 전 4번의 양육클래스와 3번의 수요일예배 시리즈를 들었다. 박경수 교수님의 설교 강의를 통해 종교개혁의 선구자 피에르 발도, 존 위클리프, 얀 후스를 만났다. 개혁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용기와 희생이 따른다. 진리라 믿고 옳다 믿고 행한 일이지만 수많은 저항과 희생으로 목숨 바쳐 지켜야 했던 일이다. 그들의 믿음은 어디에서 왔기에 일평생을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했는지 궁금했다. 그들을 만날 생각에 설렌다.

탐방지로 떠나기 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했다. 현수막을 준비하고 이름표도 만들고 QT 말씀을 나눌 책자도 준비하고 무엇보다 80명이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탐방을 잘 마칠 수 있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은혜를 믿고 우리는 종교개혁지 탐방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탐방을 시작했다.

우리의 종교개혁지의 탐방 일정은 계획과는 다르게 진행되어갔다. 일정 첫날 오후부터 1호차는 버스가 고장이 났다. 고속도로에 경고음을 울리며 연기가 나는 버스가 멈춰 섰고 겨우 비상책으로 인근에 있는 주유소 휴게소까지 10여분을 달려가 그곳에서 예측 불가능한 일들을 만나게 되었다.

1~2시간이면 되리라 믿었던 버스 고장은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8~9시간을 휴게소에 머물게 하였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일을 했다. 조별로 모여 말씀 나눔 QT의 시간도 가지고 버스 안에 모여 준비해 간 찬송가로 찬양도 하고 휴게소에서 40여명의 식사를 두 끼나 해결해야 했으며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 속에 각자의 컨디션 관리도 해야 했다. 화장실은 유료(1유로=한화1,480)이고 물도 사서 마셔야 하고 그동안 우리는 당연하게 누리던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금 알아차렸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새벽1시가 되어서야 호텔에 도착하였고 우리의 고생은 그렇게 끝났기를 바랐는데 다음날에도 1호차에게는 버스가 문제였다. 10시에 출발하기로 했던 버스가 오지 않아서 1호차를 1,2조로 나눠 택시로 움직이는 일이 생겼고 그렇게 밀리게 된 일정은 우리에게 탐방지를 여유롭게 돌아볼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버스 기사와의 소통에도 문제가 생겼고 만나기로 한 장소를 벗어나 우리가 버스를 찾아 가야 했으며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가 순탄치 않은 시간들의 연속이었다.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변수 속에서 하루하루를 말씀 나눔으로 매일 QT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며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갔다. 예상치 못하게 제네바역에서 TGV가 운행 취소가 되었다. 80여명이 밤11시에 묵을 숙소를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두 곳으로 숙소가 나뉘었으며 제네바역 근처는 연장자를 배려해서 먼저 숙소 배정을 했으나 급하게 구한 숙소라 공용 화장실, 공용 샤워실의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다른 숙소는 택시로 20~30분을 가야 하는 곳이었다. 택시 15대가 그 늦은 밤, 비를 뚫고 달려 도착하고 보니 또 새벽 1시를 넘기는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렇게 제네바역에 다시 각자의 숙소에서 모여 파리로 출발했다. 지난밤 전쟁과도 같은 상황에서 침착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 기다림의 시간에 앓을 곳도 부족했던 역내에서 우리 말씀조는 둥글게 모여 서서 그 날의 말씀 나눔을 했다.

지나고 보니 참 은혜의 시간이었다. 힘든 하루의 일정 속에서도 우리가 든든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함께 고생하는 동료들이 있었고 그 속에 우리의 기도가 있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어쩔 이리 종교개혁과 딱 맞는지 놀라며 우리는 너와 함께 하며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와의 말을 붙잡고 오늘도 힘을 내 본다.

시간에 쫓기듯 다닌 일정 속에 나의 최고의 탐방지는 로마가톨릭에 군사적으로 대응했던 타보르에 지슈카 광장과 후스 박물관, 전쟁 땅굴 카타콤베였다.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탄압을 피해 지하 땅굴을 파고 그 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모이기를 원했던 그들의 삶의 현장을 보고 그 곳에서 생활해야 했던 그들의 믿음이 지금 편하게 예배드리고 맘껏 성경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나에게 다시 신앙을 점검하며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종교개혁지 탐방은 그리 순탄한 일정은 아니었다.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나의 걸음에 발목을 잡았고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물에 혼란스럽기도 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겪으신 분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고생한 만큼의 끈끈한 전우애가 생겨 교회에서 다시 뵈게 되니 무척 반가웠다. 바쁜 일정 속에서 숨 가쁘게 달리다 보니 80명이 모두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탐방을 마치고 돌아온 것에서부터 셀 수 없는 감사가 생각나기 시작했다. 받은 복을 세고 있는 중이다. 하나님께서 이번 탐방을 통해 보여주신 많은 은혜와 복이 오래도록 나의 신앙생활을 지키는 힘이 될 것 같다. 이번 종교개혁지 탐방에서 만난 모든 일로 확실한 체험의 간증이 우리를 분명한 사명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실 하나님의 도구로 각자가 쓰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신정미 집사



2024 주님의교회
종교개혁지 탐방

순례자의 마음으로

유럽은 기독교가 천 년간 뿌리를 내린 박물관입니다. 유럽 자체가 기독교 복음을 증거하는 유물들이기에 건물, 음악, 도서, 책, 역사 모두가 엄청난 것입니다. 유럽이 기독교 문명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는 성 베드로 광장, 파리 세느강에 있는 노트르담 사원,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 미켈란젤로의 성화, 마태 수난곡 같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음악들 등 이것이 유럽이 기독교임을 자랑하는 증거입니다. 유럽의 여러 기독교 유물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특별한 시간이었고, 잊지 못할 추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11일 동안 유럽 5개 지역을 돌아보며 종교개혁 순례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강요>에서 기독교인의 삶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는 십자가 앞에서 욕심, 질투, 시기, 절망 등 자신의 삶을 버리는 것이며. 둘째는 순례하는 삶입니다. 영적인 눈을 뜬 이는 삶을 여행이 아니라 순례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생은 하늘 고향 집을 향해 떠나는 순례의 여정입니다.

시편 119편 19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땅 위를 잠시 동안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루터, 얀 후스, 칼빈 등 종교 개혁가들이 걸어갔던 발자취를 통하여 욕심을 버리고 순례자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봄이 어떨런지요. 함께했던 모든 분들의 사랑과 기도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종성 목사

2024 주님의교회
종교개혁지 탐방

말씀의 본질과 주님의 뜻을 지키려 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

6월부터 시작된 루터와 칼빈에 대한 4주간의 교육과 박경수 목사님의 수요일예배 시리즈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직접 가서 보고 싶은 기대가 부풀어 올랐다. ‘어쩌다 2호차 총무’가 된 내게 “이번에 엄청 무서운 분들 많이 가신대~”라고 건넌 농담 한마디를 듣고 어느덧 출발일이 다가올수록 이전에 가졌던 기대보다는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두려운 마음이 커지고 있었다. 그런데, 출발하는 아침 리무진에서 읽은 큐티 본문은 대학부 때 걱정과 두려움으로 사역을 준비하던 내게 은혜를 주셨던 동일한 말씀이 아닌가. 출발부터 감동의 눈물을 주시면서 그 순간부터 주님이 주실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대가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기대와는 달리 여행 중 이런 저런 사건 사고로, 자잘한 오해로, 일벌결에 동행하게 된 아들 녀석도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맘이 편치만은 않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따뜻한 위로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오히려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하셨다. 칼빈과 루터, 얀 후스, 츠빙글리 등 목숨을 내어놓고 말씀의 본질과 주님의 뜻을 지키려 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타보르 지하 동굴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았던 이들의 자취를 느끼며 어느덧 작은 것에 일희일비하는 내 모습이 부끄럽게 여겨졌다. 특히 체코의 몰다우강 물줄기가 흘러 독일의 엘베강과 만났다고 하는데, 이는 체코의 얀 후스의 사역 100년 후 독일에서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한 역사의 흐름과 오버랩 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에 감사의 탄성이 절로 나왔다. 모든 여정에서 세밀하게 함께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사용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함께 은혜의 추억을 쌓았던 목사님과 성도님들, 그리고 언제 이런 경험을 해보겠냐며 재미있어하는 아들과 함께여서 감동의 눈물과 웃음이 가득한 여행이었다.

이영애 집사

필리핀 몬탈반 의료선교
사역보고

필리핀 몬탈반 의료 선교 보고

필리핀 몬탈반 의료선교는 몬탈반 지역의 LHCA 학교에서 주님의교회 의료선교부와 칠드런 퓨처스가 공동으로 빈민층 구제를 위한 의료 선교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선교사역으로,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LHCA 학교 1층에서 사역하였습니다.

금번 의료 사역에 함께한 사람들

• 주님의교회(총11명)

유정식 장로(전문선교위원회 위원장), 이광우 집사(의료선교부장, 치과), 이미경 집사, 한창인 목사(한의사), 김선화 권사(가정의학전문의, 피부미용), 박준 집사(성형외과), 최미경 집사, 김현철 집사(카이로프랙틱-재활, 통증), 박에이미 집사, 사무엘(아들, 미국 고등학생), 강석구 안수집사(행성)

• 칠드런 퓨처스(총4명)

김도묵 이사장, 양동훈 장로, 권오승 장로, 김성구 장로

• 몬탈반 시청 보건소 의사 1명과 간호사 5명(총6명)

의료선교 사역현황

• 8월 25일 사역통계

(내과: 78명, 성형외과: 12명(시술 2명), 재활통증의학과: 63명, 치과: 23명(발치 29개), 한방: 39명) 총 215명

• 8월 26일 사역통계

(내과: 187명, 성형외과: 19명(시술 6명), 재활통증의학과: 80명, 치과: 40명(발치 50개), 한방: 102명) 총 428명

• 진료환자수: 총 합계 643명

사역 내용

- 필리핀 몬탈반 지역의 빈곤층을 위한 의료 제공 및 어린이 심장병 환자 케어
- 피부병 환자, 종양수술, 통증환자에 치과치료, 한방치료등 다양한 의료 사역을 통해 의료 혜택을 확대

필리핀 몬탈반 및 그 외 지역 의료 선교를 위해 주님의교회가 협조해야 할 부분

- 칠드런 퓨처스에서 올 11월부터 건설 공사를 하는 홍수 피해 대책 건물이 완공 되어 치과 의료시설 및 피부 종양 등 간단한 수술을 위한 진료 공간이 마련되면, 의료선교에 관심 있는 의료진이 언제든지 방문하여 진료를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현재 필리핀 선교지의 환자(피부종양, 얼굴기형, 치과수술, 어린이 심장병)를 몬탈반으로 픽업해서 치료 가능한 방법을 모색

후기

참여한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선교 마인드와 진료 장소의 이동 없이 동일 장소에서 많은 사람을 진료할 수 있었고, 작년에 이어 도우미들과도 호흡이 잘 맞아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았으며, 잘 짜여진 의료진의 구성으로 내년에도 꼭 방문해달라는 요청을 받음.



필리핀 몬탈반 의료선교
소감

몬탈반, ‘쓰레기 마을’로 불리어지는, 어찌 보면 그 나라의 정치적 관심과 중요도에서 마저도 밀려나 있는 곳. 교회 ‘의료선교팀’과 더불어 칠드런스 퓨처의 일원으로서 필리핀 ‘몬탈반’의료선교에 동참하게 되었다.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고통 받는 병들고 아픈 이들을 진료하고 섬기는 일에 힘을 보태고, 현지 상황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적어도 짐은 되지 말아야 할텐데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고 염려이었다. 찌는 더위, 흙먼지와 쓰레기 부스러기 흩날리는 길거리를 한참을 달려 들어선 현지는, 우중충한 날씨와 더불어 조금은 무거운 마음이 들게 하며 긴장감을 높여 주었다. 삶 자체가 힘겨울 밖에 없는 현지인들을 마주치면서 부딪히게 될 여러 상황에 모두는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분위기는 팀원들의 눈빛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본격 의료 진료가 시작되었다. 막상 진료가 시작되자, 각자 맡은 분야

별로 밀려오는 환자들과 현지인들을 진지한 자세로 대하며, 온 힘을 다하여 진료하는 모습에 조금도 빈틈이 없어 보였다. 역시 ‘전문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기에 충분하였다. 이제, 부족한 장비와 시설, 열악한 환경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섬기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큰 문제가 될 수가 없었다.

어찌 그리 표정들이 해맑고 밝을 수 있는지... 삶의 질이나 주변 환경으로 보면 불평, 불만이 가득할 수도 있으련만,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헬로’로 맞이해 주는 현지인들. 그들의 환한 미소에 같이 화답하며 땀을 흘리는 가운데 어느덧, 이 일은 즐거운 일이 되어 있었다.

참으로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일정이었다. 사무에서 은퇴한 사람으로서, 이 일을 통해 새로운 도전과 의미있는 ‘일거리’를 찾게 되었다는 것은, 저에게는 커다란 축복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성구 은퇴장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몬탈반 의료선교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번 의료선교는 준비 과정에서 참여 의료진 구성이 쉽지 않아 걱정되었지만 기도와 기다림 속에서 주님이 하신다는 말씀처럼 시간이 다 갈수록 의료선교에 소망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 진료과가 구성되어 질환으로 고통 받는 여러 환자를 진료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전 준비 과정부터약품 운송 및 진료

중에 마주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동행하심과 먼저 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걱정이 평안으로 변하고 말씀이 실체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의료선교를 통해 우리를 불러 쓰시고 함께 하셨으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배우며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광우 안수집사 / 의료선교부장

저는 외과 전문의로 20년 전 미국에 가서 카이로프랙틱을 공부하고 환자를 진료하다가, 5년 전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는 아내의 손에 이끌려 병원과 가까운 주님의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세미나가 많아 주일을 못 지키다가 나가게 되었는데 우연히 의료선교에 갈 의료진을 구한다는 소식을 주보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 순간 불현듯 여름휴가 대신 가족을 데리고 꼭 가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고 집으로 돌아온 후 의료선교부 부장이신 이광우 집사님께 연락해 참가 의사를 전했습니다.

몬탈반에 도착한 다음날 아침,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은 제가 경험한 가장 열악한 환경이었고, 거리에는 개의 배설물이 가득했습니다. 집들은 온전한 벽돌도 없이 시멘트, 양철, 판자 등으로 이루어진 허술한 집이었고, 벽에 네모난 구멍만 있을 뿐 유리창은 없었습니다. 마루도 없이 바닥은 거의 맨 땅 수준이었고, 걸어 놓은 빨래는 걸레처럼 보였습니다. 주민들은 작고 말랐으며 초췌한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동네 개들은 이방인을 보고도 짖지를 않고, 동물이 갖는 야생의 활기가 없이 따뜻한 양지에서 기운 없이 졸고 있었는데 많은

개들이 피부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노점상들이 생선, 고기, 야채 등을 파는데 파리들이 어지러이 날아다니고 있어 도저히 사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짧은 일정 속에 치료받고자 찾아온 환자들을 다 돌보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환자의 연령대는 40대가 가장 많았고 젊은 환자도 많았습니다. 주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고,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 환자들은 치료에 잘 반응하였고, 저희 가족은 이틀간 143명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제가 보다가 부족한 부분은 제 아내가 보완해 주었고 아들 사무엘은 옆에서 보조하며 환자의 안내를 도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의 짧은 생각으로 가고자 계획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몬탈반 의료선교를 통하여 사무엘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고 저 또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 속에서의 만남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이 이렇게 복되고 기쁜 일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함께 의료선교를 떠났던 분들과 장로님들 모두 팀워크를 잘 이루어 즐겁고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김현철 집사



필리핀 몬탈반 의료선교
소감

무더위가 가시기 전, 하나님께서는 준비도 안된 저를 초대하셔서 당신이 일하시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건강을 잃을 뻔한 선교사님께서 학교와 교회를 세우시고, 지역 아이들의 희망의 터전을 만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같이 간 장로님들은 큰 계획을 추진 중이셨고, 진실로 믿음을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속도감 있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저는 손가락을 얻는 느낌으로 감격스럽게 지냈습니다. 필리핀 몬탈반에서는 과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셨고, 믿음만을 보시고 기적에 기적을 더하고 계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나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김선화 권사

항상 준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이번 봉사에서 다시 한 번 느껴봅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갈 수 있을까 하는 어려움과 유혹이 많았지만 결국 완주하게 하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실까, 내가 자격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게 하시면서 내게 평생 주신 달란트는 주님 사업에 쓰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라고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몬탈반의 어려운 아이들을

진료하면서 비록 작은 도움일 수는 있지만 그들에겐 쉽게 접하지 못하는 진료이고, 감사의 손길로 받아들이는 것을 지켜보며, 또한 선교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껏 갈구하였으나 채워지지 못한 기쁨과 남은 인생여정에 큰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말기고 쓰신 그 분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진료를 받은 몬탈반 주민보다 오히려 제게 더 큰 기쁨 주심을 이 글을 쓰면서 다시 한 번 느낍니다. 박준 집사

먼저 의료사역을 무사히 다녀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의료사역은 준비만 해드리고 참여는 하지 않으려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작년 사역 중 건강하셨던 어머니께서 갑자기 하나님 품으로 가셔서 급하게 귀국했었습니다. 평소에 아버지 건강이 더 걱정되었는데 어머니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역 기간이 어머니 첫 기일과 겹칠까 걱정되었고 또 하나는 아버님이 사역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다행히 의료사역은 어머니 기일 한주 뒤로 예정되어 사역을 같이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사역 한 주전 어머니 기일에 고향에 가서 추도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다녀온다고 하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라고 가족들이 지지해 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아버지 제가 사역 다녀올 때까지 잘 계셔야 합니다”했더니 아버지(강 장로님)께서 웃으시며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와”라고 해 주셔서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몬탈반 사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의료진이 꾸러지지 않아 작년에 섬겨주셨던 분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의료사역에 깊이 관여해 주셔서 많은 의료진을 채워 주셨습니다. 새롭게 꾸러진 사역팀은 서로 모르는 분들이 많았고, 의료사역을 처음 가는 분들도 있어 사역 동안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러 차례 준비모임을 통해 물품과 약품들을 조율하면서 마음이 정말 잘 맞아 사역 준비 과정과 사역하는 동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역 출발일 새벽 4시 30분에 교회를 출발 인천공항을 거쳐 마닐라 도착

입국 수속 후 가져간 약품 가방을 챙기는데 우리 가방에 노랑색 분필로 x자 표시가 되어있어 ‘약품이 걸렸구나’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세관원들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셔서 약품을 무사히 가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말하지만 그때는 엄청나게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현지 선교사님을 만나 준비된 버스를 타고 몬탈반으로 이동, 진료가 이루어질 학교를 진입 하는 길은 버스가 전깃줄에 걸려 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역지 교회 청년들이 장대를 들고 나와서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전깃줄을 하나하나 들어 올려주어 무사히 학교에 진입했습니다. 사역지에 도착한 우리팀은 방 배정 후 각료에 필요한 짐들을 챙겨 각과의 진료실을 꾸몄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도 어찌나 잘 하시던지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룻밤을 보내고 진료 첫날이 주일이어서 오전에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 후 진료를 시작했는데 현지 보건소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협력해주어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데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첫날 진료가 끝나고 기도회와 나눔 시간에 이번 사역을 통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데 듣고만 있어도 은혜가 넘쳤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둘째날 사역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고 사역 동안 많은 환자를 진료했고, 많은 수술을 했고 많은 이를 뿔었습니다. 여건이 어렵게도 열심히 섬겨주신 청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수고 많으셨고 사역 동안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강석구 안수집사



청소년사역원
정신청소년포럼

제14회 정신청소년포럼 ‘선배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10월 7일(월), 오후 2시 ~ 4시까지 700여 명의 학생과 교사들, 주님의 교회 교우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14회 정신청소년포럼이 대예배실에서 열렸다.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최재봉교수는 “AI 사피엔스 시대 교육의 역할”이란 주제로, 코로나 이후 더욱 빠르게 다가온 AI 시대 속에서 어떻게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해야 할지를 강의에 담아 전해주었다.

그는 AI 시대에는 오히려 인간의 감성과 감각, 본성이 중요하다 말하며, 인간의 마음을 잘 이해하여, 좋은 질문을 만들고 던질 줄 아는 능력이 절실히 요청된다는 이야기와 함께 AI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기운을 북돋아주고 앞으로의 삶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해주었다. 늘 그렇듯, 학생들은 진지한 자세로 강의를 들으며, 함께 호흡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다.

정신청소년포럼은 2019년부터 진행된 주님의교회와 정신학원의 연합사역이다. 정신청소년포럼은 사회와 개인의 삶 속에서 타인과 공동체에 선 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리더들과 사회활동을 하는 크리스천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인생의 소중한 가치와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는 긍정적인 힘을 기르도록 하는 것과 앞서 삶의 길을 걷고 있는 선배들과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는 폭을 넓힘으로써 오늘의 불안함과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역사 속에서 살아계셔서, 생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계속해서 정신청소년포럼이 교회와 학교와 가정(부모와 지역사회)이 함께 청소년을 사랑하고 살리며, 그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울타리가 되어주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기를 소망한다.

임경순 목사 / 청소년사역원



중보기도부
수련회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2024년도 하반기 중보기도부 수련회가 지난 10월 10일 경기도 가평군 소재 오론비전빌리지에서 열렸습니다. 210여명의 중보기도부원들이 참석하여 기도의 불씨를 다시 한 번 틔우는 시간으로 진행되었고, 화양감리교회의 최상훈 목사님(『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DNA』의 저자)을 강사로 모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랜 시간 케냐와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벤츄라 지역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며 하나님을 향해 적립해둔 기도의 열매들을 하나씩

확인하시는 기쁨을 맛보고 계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헌신하신 우리 부장님과 스태프들, 참여해주신 모든 중보기도부 동역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박주영 목사 / 중보기도부



교회사용설명서⑦

해외선교사 이해하기

사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정보

선교사란 다른 지역,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음식과 문화가 다르고, 풍습과 종교도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합니다. 주님의교회에서는 교회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파송·협력·견습·단기 선교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파송선교사는 일정 기간 선교할 것을 약정하고 교단 총회나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로, 일반·시니어·현지인·국내·통일 파송선교사로 구분합니다. ‘일반’은 목회자와 전문인 선교사를, ‘시니어’는 40세 이상으로 직업이나 전문적 기술을 활용하여 자비량으로 파송되는 선교사를 말합니다. ‘현지인’은 교단 총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획득하고 선교지로 역파송되는 선교사를, ‘국내’는 국내 거주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를, ‘통일’은 북한이탈주

민과 동포를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를 말합니다.

협력선교사는 다른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파송한 선교사로 교회에서 선교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기로 약정하고 후원하는 선교사이며, 견습선교사는 견습을 목적으로 파송되어 일정기간 후원 약정을 받은 선교사, 단기선교사는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선교지에 최소 6개월 이상 3년 미만으로 파송된 선교사를 말합니다.

사용 방법

주님의교회에서는 파송선교사 11지역 19명을, 협력선교사 5지역 9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선교를 제한하는 지역에 파송된 선교사는 신변의 위험 때문에 주로 가명을 사용합니다. 아래에 2024년 10월 선교사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지역	국가	구분	성명(가명)	선교 기간	주요 사역
동남 아시아	V국	파송	최화평 김사랑	2011.4~2023.3 (1~4차) 2023.4~2028.3 (5차)	원키즈클럽 시골 지역과 주일학교 어린이 성경 읽기 사역 위해 어린이에 맞게 성경을 현지어로 번역·출간, 청소년 성경교육자료 개발(번역·편집)
		파송 (현지인)	야린	2022.9~2025.8 (1차)	최화평 선교사 협력, 원키즈클럽 교육자료 번역·편집, 시골 지역 교회에서 한국어 교실 및 청년부 사역
		협력	이믿음 김사랑	2022.1~2026.12 (1차)	현지 의과대학에서 의사로 의료와 교육 사역, 현지 최초 호스피스센터 운영, 의료진 양성(한국 연수), 타 지역으로 호스피스 사역 확대
	필리핀	파송	유성훈 이경	2021.2~2024.1 (1차) 2024.2~2029.1 (2차)	루손섬 팜팡가주 딜라달라 지역 현지인 사역자 양성 및 교회 사역, DOD(Dream of Dila-Dila) 한글학교와 제자 훈련, 코피노 사역 준비, 딜라달라 도서관 건립
		협력	이인로 이경애	2022.1~2026.12 (1차)	루손섬 리잘주 어린이개발사역(CDP)과 현지인 대상 산호세동부선교교회와 모리아산교회 목회, 몬탈반 LHCA 초중고등학교 전교생 600명 교육 사역, 몬탈반 지역 의료, 청소년을 위한 지역 교회와 협력 사역, 청소년숲, 전문선교의료팀과 몬탈반 협력 사역
		협력	송지형 서지은	2024.1~2028.12 (1차)	민다나오섬 끼나위 지역에서 어린이를 위한 이동 및 컨테이너 도서관 운영, Bible Story Time 프로그램을 통한 어린이 성경 사역
	말레이시아	파송	김대환 한주희	2021.1~2023.12 (1차) 2024.1~2028.12 (2차)	동말레이시아 사바주 보르네오신학대학교에서 장신대와 신학교류 협력 바탕 신학 형성 과정 교수 사역 준비 중
	인도네시아	협력	이인호	2024.7~2029.6 (1차)	수마트라섬 스리위자야신학대학교에서 신학교수 사역, 지역 교회 및 미전도종족 선교 사역
동아시아	일본	파송	정수아	2023.1~2027.12 (1차)	일본 내 중국인을 위한 선교, 중국교회 및 가정교회 협력 사역
중앙 아시아	K국	파송	윤바나바 김은비	2008.6~2023.2 (1~5차) 2023.3~2028.2 (6차)	태권도 보급 및 지도자 양성을 통한 스포츠 전문 사역, 러시아어 보급 및 태권도 꿈나무 지원 프로젝트 수행, 치과위생사 교육을 통한 의료 선교 사역
		파송	한사람 이나라	2022.9~2027.8 (1차)	현지 치과대학 치기공 교육 및 현지인 의료 사역, 한국어 교실 운영을 위한 세종학당 연계 사역
		파송 (시니어)	변춘석 심선숙	2024.3~2029.2(1차)	치과 의료 전문 및 시니어 사역, 현지 치과 컨설턴트 및 한국 치과와 연계 사역 추진
유럽	영국	파송	김윤희	2019.11~2024.10 (1~2차) 2024.11~2027.10 (3차)	난민 케어 및 복음 전도 사역, 현지 선교단체 협력 사역 무슬림 선교 : 성경 공부, 뮤직스쿨 수업
중남미	코스타리카	파송	금상호 김미경	2009.1~2023.12 (1~5차) 2024.1~2028.12 (6차)	원주민 사역 : 스페인어 묵상집 편집 및 보급, 인디오 마을 방문 및 말씀 훈련, 성경 읽기, 부향과 수지침, 지역 교회 협력 사역
중동	A국	파송	김보아스 윤룻	2024.1~2028.12 (1차)	무슬림 사역을 위한 현지 정착 중
아프리카	케냐	협력	이원재 진은현	2012.1~2023.12 (1~4차) 2024.1~2026.12 (5차)	나이로비 외곽의 콤파스 스쿨에서 고아와 난민 청소년 교육 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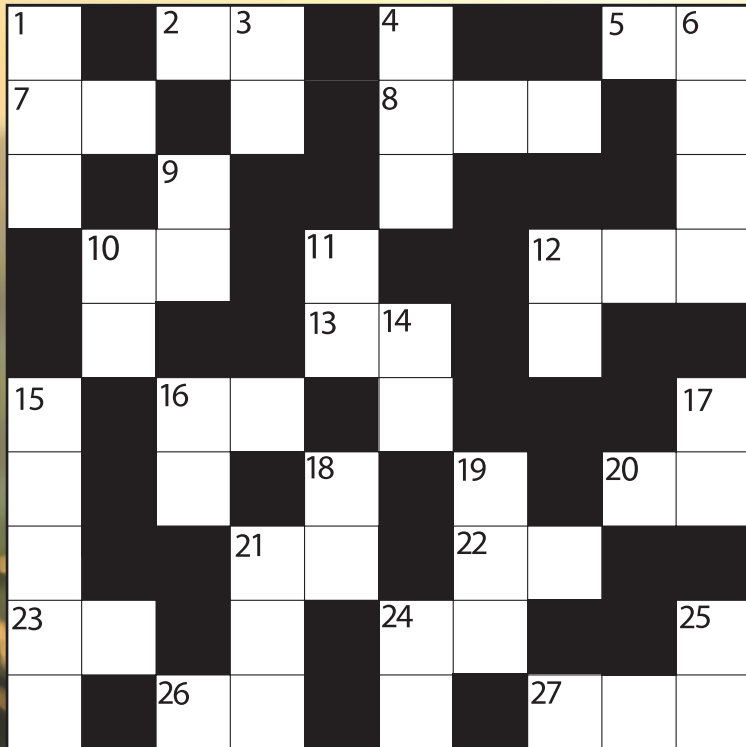
관리법과 주의사항

선교사는 자신의 안위와 평안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인 선교에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함께 기도해 주세요. 둘째, 기회가 된다면 선교사역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참여해 주세요. 셋째,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여 스스로 선교의 중심이 되어 주세요.

함글함글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풀이 나훔 편

이번 호는 <나훔> 편입니다. <나훔>의 저자는 선지자 나훔으로, 앗수르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가버나움은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공생애 초기에 이곳에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찾으실 수 있도록 힌트에 해당 성경 구절을 안내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490호 '미가' 편 정답



가로 힌트

- 모두 멸망하도록 함.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 곳을 ○○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나 1:8)
- 나무의 원줄기에서 갈라진 줄기. "○○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다. (나 2:2)
- 딱정벌레에 속하는 곤충. 주로 곡식을 갉아먹는 해충이다. (나 3:15)
- 아프리카 사바나 지역에 서식하는 동물의 왕 가운데 수컷. 애니메이션 영화 <라이온 킹>(1994)에 나오는 심바, 무파사, 스카는 모두 이것이다. (나 2:11)
- 어떤 것을 다른 것과 구분하기 위해 붙인 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다. (나 1:14)
- 흔히 평화를 상징한다고 알려진 새. 통신수단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 새의 발목에 편지를 묶어 보내기도 했다. (나 2:7)
- 병사들을 이끄는 수장. 특히 건장한 군인이나 지휘관을 말하기도 한다. (나 3:17)
- 주로 금속으로 만든 고리를 여러 개 이어서 만든 줄. 작고 가느다란 것은 목걸이의 줄, 크고 우람한 것은 배의 닻을 매다는 데 쓰이며, 은유적으로는 무엇인가에 속박된 상태를 말하기도 한다. (나 3:10)
- 몹시 노여워 함. 또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크게 노하는 것을 뜻한다. (나 1:2)
- 외부의 적이나 침입자를 지키는 일.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의 <호밀밭의 ○○꾼>(1951)은 청소년 필독서 가운데 하나이다. (나 2:1)
- 안부나 사정을 전하는 것. 다른 한자 어원으로, 음식을 조금 먹는 것도 이렇게 말한다. (나 1:15)
- 유대 땅 길르앗에서 헬몬산 사이 갈릴리호수 동쪽에 있는 지역. 후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었다. (나 1:4)
- 교통량이 꽤 많은 길.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도로를 뜻한다. (나 2:4)
- 목장에서 양과 같은 가축을 돌보는 사람. 성경에서는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를 상징한다. (나 3:18)
- 선지자 나훔의 고향. 유다 남부에 있다. (나 1:1)

세로 힌트

- 앗수르의 수도. 선지자 나훔이 멸망을 선포했다. (나 1:1)
- 멸망하여 없어짐. 멸망하여 대가 끊기는 것을 뜻한다. (나 1:12)
- 지금의 이라크 북쪽에 있었던 고대 국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었다. (나 3:18)
- 벼의 마른 줄기인 짚의 부스러기. 하찮은 것들을 의미하기도 한다. (나 1:10)
-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가 모여 높은 하늘에 떠 있는 것. 높이와 모양에 따라 이름이 다르다. (나 1:3)
- 바로 지금. 지나간 시간아 아닌 바로 이 때를 의미한다. (나 2:11)
- 문이 열리지 않도록 가로질러 끼우는 막대기. 어떤 것의 입구를 잠근다는 말로도 쓰인다. (나 3:13)
-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들이 ○○ 강하고 많을지라도" (나 1:12)
- 물길을 열거나 닫는 문. 강이나 수로에 설치하여 흐름을 막거나 수량을 조절한다. (나 2:6)
- 갑자기 발생한 저기압으로 공기가 모여들어 기둥처럼 회전하며 올라가는 현상. 규모가 아주 큰 경우 토네이도, 바다에서 발생해 물을 끌어 올리는 이것은 용오름이라고 한다. (나 1:3)
- 인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다. (나 1:1)
- 몹시 화가 남. 화가 치밀어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나 1:6)
- 원한이 맺힐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나 집단. 셰익스피어 <로미오와 줄리엣>의 몬태규 가문과 캐플릿 가문은 서로 이런 사이였다. (나 3:11)
- 사람의 목으로 내는 소리. 어떤 사람의 의견이나 주장을 말하기도 하고, 음성을 뜻하기도 한다. (나 2:13)
- 어떤 임무를 띠고 어딘가에 보내어진 사람. 특별한 임무를 띤 이런 사람은 '특파원'이라고 한다. (나 2:13)
- 사실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기도 한다. (나 3:1)
- 노아의 아들인 함의 아들. 또는 이 사람의 자손이 거하던 지역으로 지금의 이집트 남쪽 지역을 의미한다. (나 3:9)

(사)섬김과 나눔

고립은둔청년(자립준비청년) 등 안심케어서비스

오는 10월부터 (사)섬김과나눔은 송파구청과 함께 『고립은둔청년(자립준비청년) 등 안심케어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자립준비청년 13가구와 취약계층청년 8가구, 총 21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 ▲자산형성 ▲건강관리 ▲자립역량강화 ▲통합사례관리 4개 분야에 걸쳐 지원합니다.

자산형성은 월 5만 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지원과 금융기관을 통한 재무교육으로 진행되며, 건강관리는 월 3만 원 내외로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등을 지원합니다. 자립역량강화 분야는 집단·개별 상담, 집수리·식생활·금융 교육 등으로 직접적인 홀로서기를 돕고, 사업종료까지 통합사례관리사를 통한 1대1 멘토링으로 개별가구에 취업연계 등 다양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19일 (사)섬김과나눔은 송파구청과 『고립은둔청년(자립준비청년) 등 안심케어서비스』 후원협약식을 가졌습니다.

10월 2일에는 안심케어서비스 선정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으며, (사)섬김과나눔은 본 사업을 위하여 올해 사업비 1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정은 특별지원부장 / (사)섬김과나눔



(사)섬김과나눔

‘2024 송파구민상’ 수상

(사)섬김과나눔이 지난 9월27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제33회 송파구민의 날 기념식’에서 『2024년 송파구민상』 총 8개 분야 중 시민사회단체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송파구는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주민 노고에 고마움을 전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추천을 받아 송파구 구민상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사)섬김과나눔은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송파교육복지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상은 (사)섬김과나눔의 사업인 ‘무의탁어르신 생활지원’, ‘늘푸른대학’, ‘이웃사랑 특별지원’, ‘생명사랑 이웃사랑 캠페인’등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봉사하여 주시는 많은 분들이 수상하신 상입니다. 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최희은 공익부장 / (사)섬김과나눔



교회일정

10/20 (주일)	추수감사절
10/27 (주일)	종교개혁주일
11/3 (주일)	성찬주일
11/6 (수)	교구 연합수요기도회(7교구)
11/9 (토)	자녀축복 새벽기도회

알립니다

1.수험생을 위한 부모, 교사기도회

주제 :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돕네!

일시 : 10/19~11/2(매주 토) 오전 6:30

11/9(토) 오전 5:20

*11/9은 자녀축복 새벽기도와 함께 진행

장소 : 중예배실 및 대예배실(11/9)

문의 : 임경순 목사(010.8466.0605)

2.꿈꾸는 3막 플러스 개강

대상 : 1기, 2기 수강생

일시 : 10/17~10/31(매주 목)

오전 10:00~12:00(3주간)

장소 : 초등부실(3층)

모집합니다

1.결혼예비학교 제23기 모집

모집 : 10/20(주일)까지

회비 : 4만원(커플당)

대상 : 예비부부, 신혼부부(결혼 후 1년 이내)

교육 : 1/3~11/17(매주일)

오후 3:00~6:30(3주간)

신청 : 박준범 목사(010.7164.5324)

주님의교회

2.파더와이즈 제6기 동행편

대상 : 주님의교회 가정, 아버지, 남편인 성도

모집 : 10/27(주일)까지

신청 : 홈페이지 '알립니다' 신청링크

교육 : 11/1~12/13(매주 금)

오후 7:30~9:00(7주간)

문의 : 이상훈 목사(010.9808.4788)

함줄함울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김낙균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 집 : 홍보출판부

〈함줄함울〉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줄함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 pclhamletter@naver.com

